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Consumer Insight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21-13)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1년 11월 15일(월) 배포	매 수	4매

여름휴가, 해외는 못 갔어도...국내여행 '코로나 전' 근접

컨슈머인사이트 '2021 여름휴가 여행률과 선호 여행지' 분석

- “국내여행 다녀왔다” 66.8%...작년 61%보다 5.8%p 늘어
- 코로나 직전만은 못해도 2018년 66.3% 수준 회복
- 해외여행률은 여전히 1%대 머물러 사실상 봉쇄 상태
- 여행지는 강원·제주·경남북·전남 등 '바다' 인접지역 많아

올해 여름휴가 기간(6~8월)에 3명 중 2명(67.3%)은 여행을 다녀왔다. 작년보다 6%포인트(p)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19년의 10명 중 8명(78.8%)에 비하면 많이 낮지만 국내여행만을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였다. 여행지 점유율에서는 강원도가, 점유율 증가에서는 제주도가 단연 1위를 차지해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둔 지역의 강세가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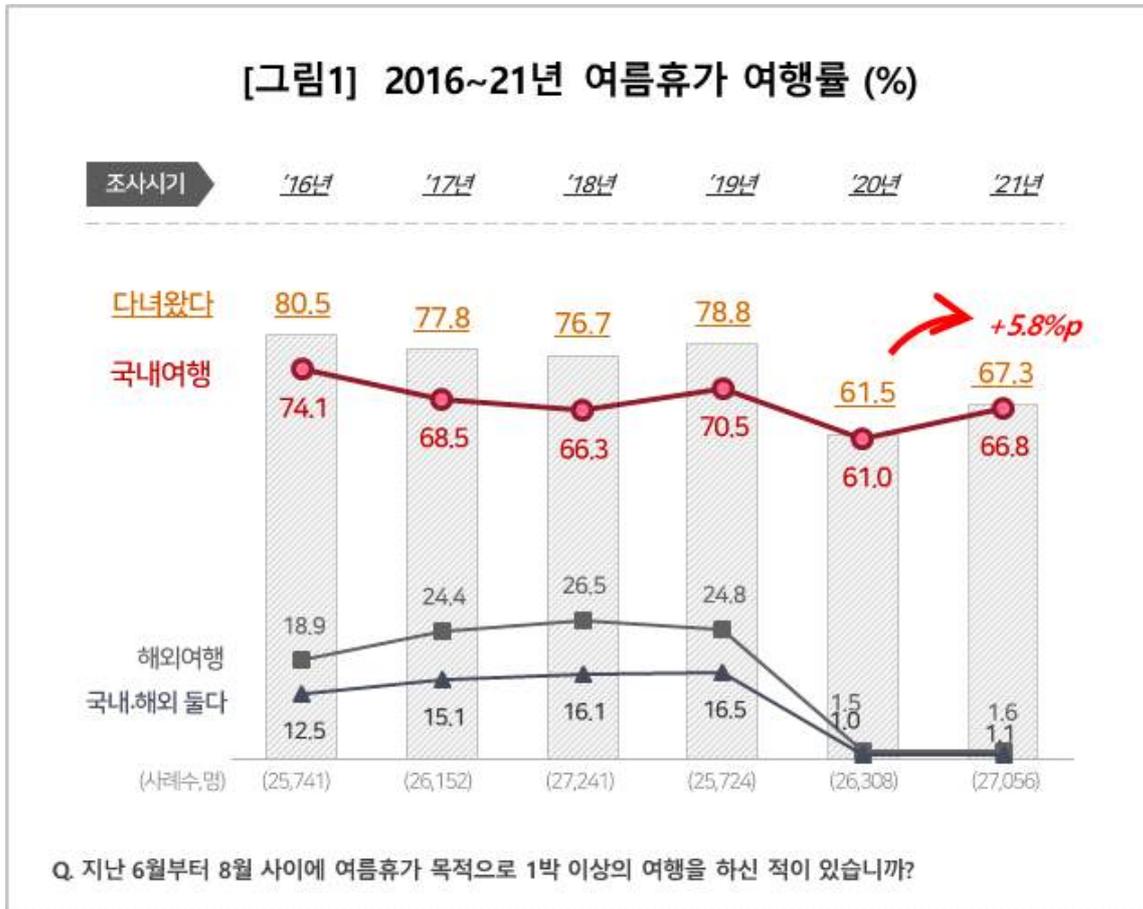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2만 7천여명에게 올해 여름휴가 기간(6~8월) 1박 이상의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그곳은 어디였는지를 묻고 트렌드 변화를 분석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전체 여름휴가 여행률은 2019년보다 11%p 낮아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응답은 67.3%로 작년(61.5%)보다 5.8%포인트(p)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8.8%보다는 11%p 이상 낮은 수치이긴 해도 해외여행이 거의 올스톱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코로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1].

여름휴가 기간 국내여행률은 올해 66.8%로 작년 61.0%에 비해 5.8% 늘었다. 2019년의 70.7%만은 못해도 그 전해의 66.3%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올해 여름휴가 여행 증가분의 전부가 국내여행 반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외여행률은 1.6%로 작년(1.5%)에 이어 1%대에 그쳤다. 코로나 이전 20% 중반에 달하던 데 비하면 사실상 완전붕쇄 상태가 계속됐다. 국내·해외여행 둘 다 다녀온 비율 또한 1.1%로 작년 1.0%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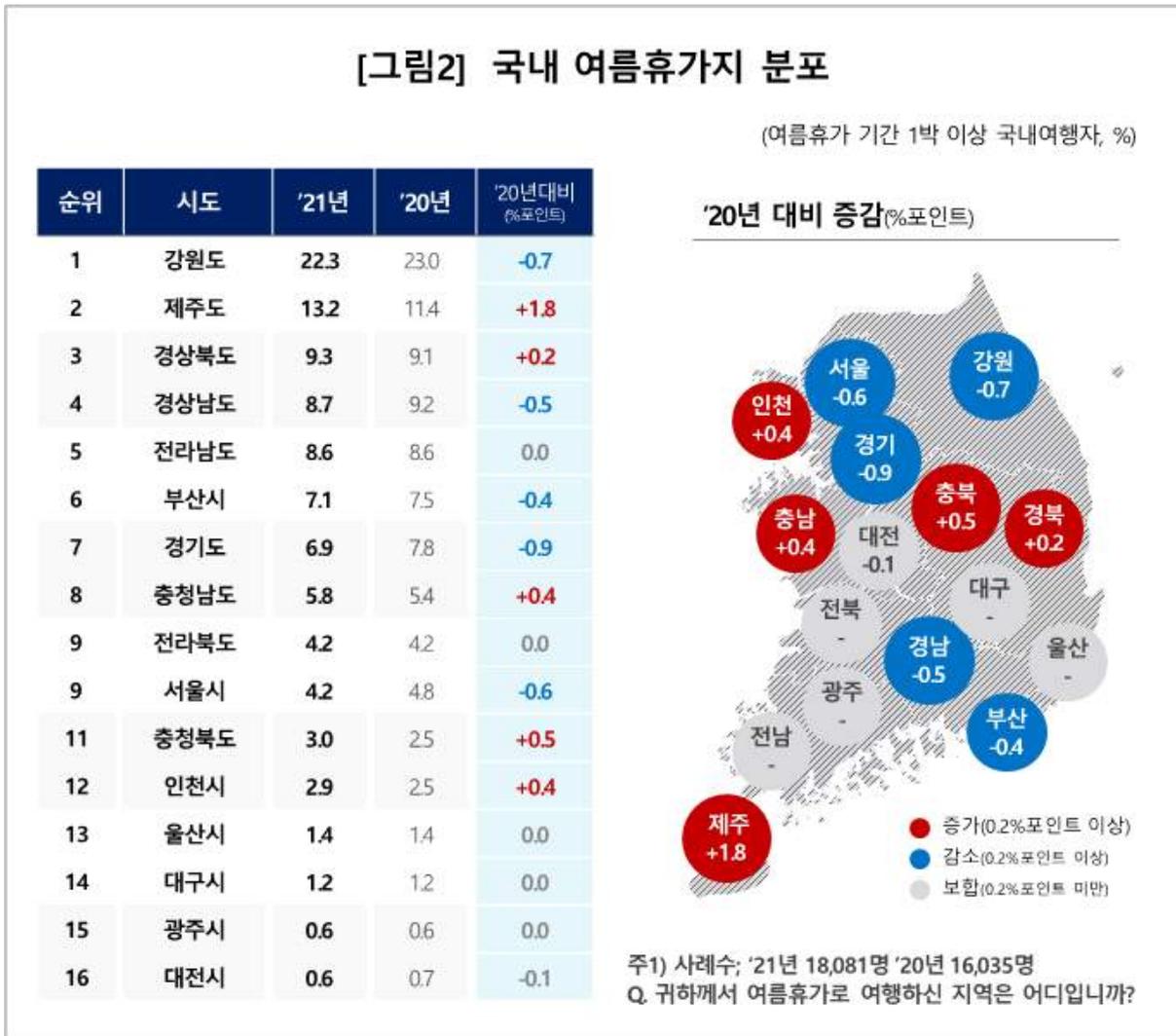


■ 제주도 여행지 점유율 1.8% 상승 두각

광역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22.3% ▲제주도가 13.2%의 점유율로 전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9.3%) ▲경상남도(8.7%) ▲전라남도(8.6%) ▲부산(7.1%) ▲경기도(6.9%) 순이었는 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3, 4위 자리바꿈을 한 외에는 역시 순위 변동이 없었다. 점유율은 제주도가 1.8%p 상승해 독보적이었으며 다른 모든 지자체는 1%p 미만의 증감률을 보였다[그림2].

기초 시군별로는 ▲서귀포시 ▲제주시 ▲강릉시 ▲속초시 순으로 역시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이 강세를 보였으며, 그 뒤로 ▲경주시 ▲여수시 ▲거제시 ▲가평군 ▲양양군 ▲태안군이 10위 안에 들었다[첨부]. 전통적인 유명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두 바다를 대표 여

행자원으로 갖춘 지역이다. 한적한 곳에서 경치 감상과 휴식을 추구하는 최근 여행 트렌드와 통하는 특징이 있다(참고. [여행하면 생각나는 것? '먹거리' 밀어내고 '바다'가 떴다](#)).



올해 상반기 국내여행 심리는 조사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7월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반짝 위축되는 데 그쳤으며(참고. [코로나 아랑곳 않고...상반기 국내여행 심리 사상최고](#)) 이는 여름휴가철은 물론 연중 국내여행 회복세로 이어졌다. 최근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해외여행이 기지개를 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를 꿈꾸기엔 이르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자체의 계절 축제도 일제히 재개될 움직임이어서 당분간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은 더 크고 넓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여름휴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7056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남궁상 컨슈머인사이트 부장	namgoongs@consumerinsight.kr	02)6004-7693

[첨부] '21년 국내 여름휴가지 (광역시 제외)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국내여행자, %)

순위	세부지역 (시/군)	점유율	순위	세부지역 (시군구)	점유율
1	제주 서귀포시	8.48	16	경남 남해군	1.52
2	제주 제주시	6.57	17	충남 보령시	1.51
3	강원 강릉시	5.84	18	강원 홍천군	1.39
4	강원 속초시	5.35	19	전북 전주시	1.16
5	경북 경주시	4.07	20	강원 춘천시	1.02
6	전남 여주시	3.80	21	강원 동해시	0.95
7	경남 거제시	2.74	22	충북 단양군	0.92
8	경기 가평군	2.50	23	전북 군산시	0.86
9	강원 양양군	2.33	24	강원 영월군	0.85
10	충남 태안군	2.23	-	경기 양평군	0.85
11	강원 평창군	2.10	26	전남 목포시	0.83
12	강원 고성군	2.09	27	강원 정선군	0.80
13	경북 포항시	1.86	28	전북 부안군	0.77
14	경남 통영시	1.72	29	경북 울진군	0.76
15	강원 삼척시	1.66	30	경기 포천시	0.74

주1) 사례수; '21년 18,081명 '20년 16,035명
 Q. 귀하께서 여름휴가로 여행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